

“글로벌 교회로서의 사명”

■ 이종윤 원로목사

글로벌 시대의 문제는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이슈와 의제들이 있다. 교회는 글로벌 시대의 위험과 그 심각성을 알려줄 사명이 시급하다. 그것은 결국 황금만능주의 즉 돈으로 세상이 되어 가고 꾸며지고 있다고 믿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봄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오늘의 현실을 비판하고 쳐부술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교회뿐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경제지상주의의 위기에 처한 글로벌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모험적인 과도 투기와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기인한 돈의 흐름 뒤에 숨어 있는 사기, 어리석음, 교만 그리고 탐욕의 문제를 교회 외에 누가 지적할 수 있나?

하나님 없는 부에 대한 경고

세상의 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죄악을 저지르는데까지 가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부는 경고를 받게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시 52:7) 이런 자들을 가리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막 10:25)라고 하셨다.

부의 나눔 vs

낭비, 허비, 우상숭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돈의 힘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세상에서 천국은 돈 갖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신앙인들이 세상엔 많이 있다.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Andrew Carnegie)는 자기 재산으로 2,500여 개의 도서관, 20여 개의 대학을 설립 지원했다. 저소득층의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록펠러(John D. Rockefeller),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여 400억 달러의 재산을 기부한 빌 게이츠(Bill Gates), 자기 재산의 83%를 기부하겠다고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고 외친 워렌 버핏(Warren E. Buffett)같은 부자들이 미국 내 전체 기부자의 20%로 총기부액의 80%를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이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돕기 위해 돈을 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오만하고, 돈으로 사람의 능력과 가치와 수준을 결정하려 한다. 그러면서 부는 묘하게 인식하다. 이런 이들은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잊고 그 부에 매달리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자기 치부에만 급급하고 자기를 위해 낭비나 허비한다. 낭비는 경제를 훼손하는 사회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풍요를 겸손과 근면으로 받고 지키고 키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웃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정신이다.

글로벌 교회로서의 사명

지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력만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세계적 위상 그 실체이다. 한국교회의 영광과 열의 그리고 교회인구의 상위구조에 세계열강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다. 워낙 그 속도가 빨랐기 때문 일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대형교회당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세계의 문제를 생각하고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목회와 설교와 선교 그리고 봉사와 신학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내 교회, 내 교파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세계 어디에도 확대된 세계적 방위(方位) 감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한 세기 동안 기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갖추게 하신 것이다. 이 시대에 준비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2014년 8월 30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넷째 주,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며,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예배 시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예배 및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간에 걸쳐 특별히 제작한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우선 오늘은 장년 등록 교인을 대상으로 1,2,3부 각 예배 후 배부합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각 교구 부스에 가서서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교회가 힘있게 새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와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정상화 및 방역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주일 예배 차량이 증가되어 차량관리부에서 안내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상주차 차량이 예배 후 교회 앞 도로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차량 흐름을 막아 전체 차량 동행을 지연시키게 되므로, 지상주차 공간은 지하 3층과 함께 교회 직원이나 종일 봉사 성도 등 주일 장기 주차할 차량만 이용해 주시고, 예배 시간 동안만 주차하실 성도들께서는 지하 1, 2층에 주차해 주시면 전체 주차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128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가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 마 22:34-40

우리 서울교회의 설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이 더욱 의미 깊은 것은 여러 어려움들을 정돈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강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시 27:5)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돌보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마침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 전 4주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영적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2천 년 교회역사에서 어려움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정의롭고 화목하며 성결을 지키되 세상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구현해야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1. 한 율법사의 질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전문가답게 그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라고 질문하며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궤변적 논쟁을 일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함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딤후 3:9)고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신앙실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이며 우리가 지향해야할 교회의 방향입니다.

2.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정서와 의지를 말하고, 목숨이란 신체적 생명을 말하며 뜻은 지성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인적이며 내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이란 인위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에 내가 먼저 감동해야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5:14)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1)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2)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갈망하기에 예배에 목숨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3) 하나님께 즐겁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즐겁게 충성하는 삶을 살면서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3.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 사랑이란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양식은 언제나 자신의 헌신을 통해 주변을 이롭게 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삶의 방식이며 존재 양식입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시민들이 수용하고 환영한 것은 황제의 칙령 때문이 아니라 그간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명확한 증거로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며 그를 높입니다. 이웃 섬김의 실천으로 세상을 감동시킵시다. 그리하여 우리교회의 신앙이 진정하고 참된 신앙임을 입증해 보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조원영 목사	조정식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80:1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06(감사절2)...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58(400)...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22:34-40...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359(401)...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예배-

오후 5시 ·인도: 손달익 목사 ·설교: 류영모 목사

목 도	다 합 께
예배로 부름 ... 시 135:2-3 ...	인 도 자
찬 송	210(245) ... 다 합 께
기 도	오정수 장로
성 경	마 16:13-20 ... 인 도 자
찬 양	열렸다 하늘문이 ... 연합찬양대
설 교 ... “교회가 희망입니다” ...	설 교 자
총회 지원금 전달(코로나 19 피해 미지급 교회 지원)	담 임 목사
회고와 감사(영상)	이종운 원로목사
축 사	강희창 목사
* 찬 송	620 ... 다 합 께
* 축 도	권용평 목사
* 주기도송	다 합 께

—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음악회 —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동수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선영 권사 II부: 성 경	행 10:1-23
인 도 자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하늘이 열리며”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안용곤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minster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모 임

1. 목회정책협의회 / 12월 4일(토) 오후 3시 802호

◆ 알 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세례식 신청 마감 / 12월 세례(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2월 12일(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 12월 4일(토) 오후 2시까지
- 세례 교육 : 12월 5일(주) 오후 1시 609호
- 세례 문답 : 12월 5일(주) 오후 2시 609호
- 세례식 : 12월12일(주) 오후 5시 찬양예배 시 본당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주일
우리 교회는 오늘을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찬양예배 시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음악회가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교회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764명	1,544명	3,308명	444명	3,276명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자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정결하고 아름답지만 질병은 사람을 초라하게 하고 누추하게 만든다. 미개한 백성은 위생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추잡한 짓을 한다. 무엇보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죄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세리와 창기를 개 취급한 이유가 이 까닭이다.

극심한 최악의 공해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깨끗케 할 수 있을까? 사회봉사나 우국충정을 구호처럼 외치는 이들이 있다. 성도가 해야 할 사회봉사는 먼저 자신을 깨끗케 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깨끗한 교회와 성도는 자연히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뽑는 것이 자신과 국가 사회 심지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